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령 강림 대축일(성모 성월)

제30권 26호(다해) 2010. 5. 23

[묵상]



성령 강림<13세기, 채색삽화, 피엠포트 모건도서관, 뉴욕>

□ 성령송가 □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매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미사

빈센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지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E. Sharing (3째주) 울프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굴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빈센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대학부(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아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생) 김풍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성낙호 요셉 & 은혜 실비아, 홍주희 안나 가정, 최태훈 아오스딩, 강호우 안토니오, 신동훈 마티아, 송주영 크리스티아, 이화영 잔다르크
	(연)이금순 마리아, 박준구 요한, 이현호 요한, 김중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이영자 마리아, 임은섭 도로테오, 전규인 스테파노, 장현숙 말바라, 김려성 모니카
주 일 낮 미사	(생)이민상 요한, 김풍길 바오로 & 재희 모니카, 홍주희 안나 가정, 김이순 마리아, 김경숙 마리아, 최금옥 말찌나, 이의남 시몬 & 춘실 카타리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 2,1-11

화답송 ○주님, 당신 얼굴 보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전례성가 74, 성령 강림 대축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어라,
내 하느님 주님이시여. 주님이 하신일이 많고도
많건마는, 온 땅에 당신 조물 가득차 있나이다.○
○얼을 거두시면 그들은 숨져버려, 드디어 티끌로
돌아가고 마나이다. 보내시는 당신 얼굴 그들은
창조되어,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주님 영광은 영원하소서. 주님은 이루신 일
기뻐하소서. 이 노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주님 안에서 나는 즐거우리이다.○

제 2독서 코린도 1서(Corinthians) 12,3-7.12-13
<또는 로마 8,8-17>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요한(John) 20,19-23

<또는 14,15-16.23-26>

영성체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17	317
봉헌	264	255,257
성체	빛 되신 주	309,276
파견	327	332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하느님의 영광이 인간의 얼굴에서 빛난다

아담의 불순명이 인간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망치고
훼손했고, 또 세상에 죽음을 이끌어 들인 반면에,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명은 인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총의 원천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
어준다.(로마 5,12-21 참조) 사도 바오로가 말하듯이 "첫 사
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
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1고린 15,45)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만
한 생명이 주어진다. 즉 하느님의 모상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
며, 그들 안에서 완성에 이르게 된다.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계
획은 이런 것이므로, 인간은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져
야"(로마 8,29) 한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이 모상의
광채 안에서 우상숭배의 노예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유대관계
를 재건하고 자신의 참된 신원을 되찾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

37).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에게 주려 오신 선물은 단순
한 시간 속의 실존이라는 수준으로 격하시킬 수 없는 선물이다.
언제나 "그분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의 빛이었던"(요한
1,4) 생명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며,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요한 1,12-13)

때때로 예수께서는 당신이 주려 오신 이 생명을 단순히 "생
명"이라고만 언급하시며,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필요 조건이
라고 설명하신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
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 3,3) 바로 이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가지고 있는 참된 목표이다. 그분께서는 "하
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요한 6,33) 분이시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생명
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12)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다.

또 다른 경우에,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신
다. 이때 "영원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단순히 시간을 뛰어넘는
시각만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
는 생명은 "영원한 분"의 생명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
에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의 일치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요한 3,15; 6,40 참조)

(◆계속)

우리는 모두 '특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돈이 얼마나 있고 학벌이 얼마나 좋은, 또 지위가 얼마나 높은 상관없이 모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는 결심을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靈)"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줄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느님의 영께서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느님의 영의 뜻에 따라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이자 기쁨을 선사해 주고, 삶의 여러가지 역경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상처들을 치유해주는 참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은 용서가 주는 참 평화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누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와 평소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주 먼 과거에 살았거나 거리상 우리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비교적 쉽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은 상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매일 만나고 매일 다투고 매일 말을 섞는 사람들의 경우는 용서하기가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가깝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해 줄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다면 우리는 성령께도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마르 3,29) 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에만 의지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 8,26) 감정적으로는 용서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미움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숨 쉬는 것 같아도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 중에 용서를 할 때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됩니다. 비록 새롭게 용서를 해야만 하는 순간이 아쉽게도 무척 빨리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끝으로, 문득 오늘 제가 접하게 된 다음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천말감이 강한 그만큼 우리는 교회를 활성화시켜 주시는 성령과도 천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가 큰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사랑합니다.' (샤를로 드 푸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들이 모인 곳이면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부족해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면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커집니다.

◆신희준 투도비코 신부 / 사제평생교육원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래 테레사	엄영숙 파리아
제1독서자	편슬기 로사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성인 크리스티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희자 파리아
제물봉헌자			P.V. 1 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이호미 엘리자벳	신중원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태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해경 태나타	이혜진 안젤라
제물봉헌자			하비/카슬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예비자 모집**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됩니다.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주변
 변의 이웃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전 신자들이 노
 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예정 : 예수님 성탄절)

- 환영식 : 6월20일(주일) 11시 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6월24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 **백삼위 한마당 체육대회 봉사자들 수고하셨습니다.**
 - 본당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주일 낮미사 후 잔디구장에서 열린 제7회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한 모든 교우분들 수고하셨습니다.
- ◆ **백삼위 영어권 청년회 창립**
 - 첫모임 : 오늘 주일(23일) 오전 11시30분, 잔디구장
 - 행사 : Frisbee Football, 점심제공, 성서 및 친교 나누기
 - 연락처 : 청소년 분과 최애우세비오 jin7choi@yahoo.com ☎(310)738-0230
- ◆ **안나/요셉회 봄철 온천 관광**
 - 일시 : 5월25(화) 오전 7시30분 성당 출발
 - 장소 :레이크 엘시노 온천
 - 회비 : 무료, 요셉회, 안나회, 일반교우(회원우선 60명선착순)
 - 문의 : 이영희 카타리나 안나회장 ☎(310)518-1736
 김금자 데레사 총무 ☎(310)539-9526
- ◆ **양업회 야유회**
 - 일시 : 5월31일(월)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 웨스틴 바닷가(약도 사무실에 비치)
 - 회비 : 가족당 \$20(준비물 : 따뜻한 옷)
 - 연락처 : 양업회 회장 김찬구 요한 ☎(310)701-6343
- ◆ **본당 성령 세미나 안내**
 - 일시 : 6월9일(수)~13일(주일)
 - 수-토 7:30p~10:00p, 주일 1:30p~5:00p
 - 지도 : 이성주 프란치스코 신부/심원택 토마스 신부

(부산교구 성령지도 신부님들이십니다.)

- 참가비 : \$20
- 본 성령세미나가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 위해 참석하는 교우들께서는 5월31일부터 9일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310)569-3940 최기남 야고보 성령기도회장
- ◆ **백삼위 골프회 6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6월12일(토) 오전 11시30분 티오프
 - 장소 : 브룩사이드 골프코스 No.1(패사디나 소재)
 - 연락처 : 정충로 안토니오 회장 ☎(310)991-6966
 이남현 막시모 부회장 ☎(213)272-3598
- ◆ **서예(한글, 한문, 사군자)반 백삼위 신자 가훈 써주기**
 - 일시 : 6월20일(주일, 아버지날) 오후 1시 이후, 2층 유아실
 - 강사 : 박태홍(한국예총 미국 서예가협 회장)님이 무료 봉사
 - 액자값 : \$100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374-1572
- ◆ **성모회 온천관광**
 - 일시 : 6월25/26일(금/토) 1박2일
 - 장소 : Waner Springs
 - 회비 : \$40(비회원 \$55) 선착순 30명
 - 신청 : 오혜숙 루시아 성모회장 ☎(310)490-3358
- ◆ **아프리카 봉사활동 도와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최보미 클라라(USC재학, 최상만 사비노/양숙 안젤라 부부의 장녀)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AIDS와 말라리아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위해 한달간 예정으로 5월20일 출국했습니다. 봉사활동(OHS) 기금을 도네이션해주신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떠난 클라라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합니다.

◆ **분실물(Lost & Found) 찾아가세요.**

- 체육대회 때 잔디밭에 떨어뜨린 옷, 모자, 그리고 자동차 열쇠꾸러미, 묵주 등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23일(주일) : 하버/카슨1,2반(콩보리 열무비빔밥 \$3)
 - 5월30일(주일) : 메모리얼데이 연휴 친교점심 없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금영도	김광자	김병태	김병학	김재우	김현숙	성전헌금	금영도	김광자	김병태	김병학	김현숙	나경흠
	나경흠	문두현	민경근	박광자	박기돈	박길윤		민경근	박광자	박기돈	박길윤	신대철	안태갑
	박진수	신대철	안태갑	엄영희	엄정자	윤성순		엄정자	윤화경	이석재	이재용	정인식	최이원
	윤화경	이석재	이재용	이지운	정인식	최이원		최희태	한금순	황지영	한길선례		
	최희태	한금순	황지영	한길선례	합계 : \$2,615			합계 : \$1,485					
미사헌금 : \$2,403							감사헌금 : 윤석구						

공지 사항

◆ 주일학교 건진성사 받은 학생들 축하합니다.

백삼위 주일학교 학생 8명이 21일(금) 오후 7시 성 마가렛 매리 본당에서 건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 * 송병찬 요한 * 박윤지 안나 * 김정우 마티아
- * 김제니퍼 스테파니 * 박채원 카타리나 * 전희원 엘리사벳
- * 윤 카타리나 * 박 안젤라 (이상 8명)

◆ 첫영성체 예식

- 일시 : 6월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중
- 첫 고해성사/세례 및 리허설 : 6월5일(토) 오후 3시45분
- 대상 : 주일학교 2학년~6학년, 첫영성체 받지 않은 어린이
- 신청서 우송했음 *문의 : 강아네스 교장 ☎780-0369

◆ 주일학교 Summer Camp

- 일시 : 6월25일(금)~27일(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장소 : Cachuma Lake (Santa Barbara)
- 대상 : 3-12학년 * 내용 :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 주거:단체 텐트 * 참가비 : \$60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모자, 자켓, 여벌옷, 선크림, Repellent cream, 개인물통, 주일학교 티셔츠, 주일현금
- 마감일: 6월6일 * 참가신청: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신청 : \$185(5월30일까지), \$195(5월30일 마감이후)
- 참고 웹사이트 : www.all4godcatholic.com
- 접수: 주일학교

남가주 소식

◆ 남가주 제23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3일(목)~6일(주일) 3박4일
- 장소 : 예수 고난회 피정센터
- 지도 : 양창우 요셉 신부(성골롬반 외방선교회)
- 참가비 : \$300
- 문의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총무 ☎(213)435-7570

◆ 남미 에콰도르 해외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5일~13일
- 장소 : 에콰도르 팔마본당과 공소
- 모집 : 의료진, 일반봉사자, 대학생
- 참가비 : \$1,500
- 문의 : 김 안나 ☎(213)272-7404

이번 주 양해 모임

5월 사목상임위	오후 1시
----------	-------

다음 주 양해 모임

메모리얼데이 연휴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신덕례 데레사 494-1390	신덕례 데레사 494-1390 5/20(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정아 리더야 213-200-9432 5/14(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대건회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57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체양석 콜메&에스터 (323)829-5313 5/14(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오석만 사무엘 750-6007 5/14(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5/14(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영희개보라 544-1009 5/11(화) 오전 10시30분

사진으로 본 제7회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한국 떠난지 30년이 되어도 기억한다-국민체조



체육대회 = 음식잔치?...!



싱글벙글 신부님과 수많은 경품중에 시선은 어디에?



인간 피라미드



줄다리기... 무조건 이겨야 한다!



흥! 어렵없는 소리!



↓출발선에 선 모습?...코끼리 일곱바퀴 후 모습



←하루의 피곤을 날려보내며...서로 어깨 주물러주기
<◆사진=신철규 미카엘/백삼위 주보편집위원>